

지리교육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남 상 준*

대한지리학회 창립 이후 우리 나라의 초·중등 학교 지리교육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출된 연구업적을 검토함으로써, 기왕의 지리교육 연구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리교육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 연구는 그동안 양과 질의 양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여섯번의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정되는 과정에서 지리교과의 위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현장의 지리교육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이 보다 발전되고 안정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의 방향으로는 지리교육의 성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영역과 지리교육 목적·목표, 지리교육 심리영역에 대한 연구 중심, 연구영역 전반에 걸친 세분화와 전문화, 정의적 영역과 기능적 영역 그리고 초·중등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더욱 증진된 지리학과 지리교육간의 협조관계의 수립을 통한 지리교육 언어개발, 지리교육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지리교육연구, 지리교육연구의 영역, 지리교과의 위상, 지리교육의 언어

I.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지리학회가 창립된 이후 5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초·중등 학교 지리교육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출된 연구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왕의 지리교육 연구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인 지리교육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업적을 검토, 분석한 선행연구로서는 정장호·강환국·정환영·이중우·유홍식의 연구 등 4편¹⁾이 있다. 정장호는 대한지리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심포지움 발표문에서 우리 나라 중등학교 지리교육의 변천과정을 1950, 1960, 197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대학에서의 지리교육을 고찰하였으며, 이어서 지리교육을 위한 연구활동과 업적을 논문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환국 정환영은 해방 이후 1980년까지의 연구논문 115편

을 대상으로 일종의 교육과정 요소에 따라서 연구영역(주제)별, 연도별 분포를 분석하고 있다. 이중우는 1945년 이후 1985년까지 230편에 달하는 지리교육 저서, 논문을 교육과정 요소와 유사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 유홍식은 1985년까지의 총 298편에 달하는 지리교육 연구물(단행본 및 연구논문)을 영역별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시기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고 이후에 산출된 지리교육 연구업적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교과교육적 논의에 충실하며, 추후 연구에 대한 요구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리교육의 연구영역을 설정하였다.

- I : 지리교육 단행본
- II : 지리교육 총론(성격, 문제점, 개선방안)
- III : 지리교육의 목적·목표
- IV : 지리교육의 내용
 - IV-a : 선정·조직의 원리
 - IV-b : 내용영역
 - IV-c : 지리교육의 내용과 지리학적 지식

*청주교육대학교

- V: 지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 VI: 지리교육의 교재
- VI-a: 교과서 및 교재의 내용 분석
- VI-b: 사회과부도 및 기타 교재 교구
- VII: 지리교육의 평가
- VIII: 지리교육의 심리
- IX: 지리교육사 및 동향
- IX-a: 지리교육사
- IX-b: 외국의 지리교육 동향
- IX-c: 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 해설
- X: 지리교사 교육 및 현장연구

분석대상은 1990년까지의 연구물의 경우 이기석 외 「한국지리논문목록」²⁾를 중심으로 하고 관련자료로 보완하였다. 1991-1995년의 경우 단행본(저서 및 역서), 연구논문,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단행본, 박사학위 논문은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출된 석사학위 논문에 한정하였고, 연구논문은 「지리학」 및 「대한지리학회지」(통권 43-57호), 「지리학연구」(17-25집), 「지리교육론집」(25-31집), 「지리·환경교육」(1권 1호, 2권 1호), 「사회과교육」(24-28호)에 게재된 논문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II. 분석결과

분석의 대상이 된 연구물의 수는 1945-1990년 333편이었으며, 1991-1995년 90편이었다. 이 연구업적들을 대상으로 시대별, 연구영역별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별첨 <표 1> 및 <표 2> 참조)

1. 시기별

우리 나라의 학교 지리교육은 1946년 12월에 제정된 미군정청의 교수요목에 의한 사회생활과의 일부분으로서 시작되지만, 이 「교수요목기」에는 직접적으로 지리교육에 관련된 연구업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1955년 9월 이후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은 제 1차 교육과정에 따르게 된다. 이 시기에 발표된

김연옥의 Pilot Course의 실제에 관한 연구논문(1955)은 우리 나라 최초의 지리교육 연구논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59년에는 1종의 지리교육 개론서와 1종의 지리교육 번역서가 출판되었다. 국제이해 교육적 관점에서 지리교육의 의의를 정립한 N.V. Scarfe의 관점을 소개한 김경성의 번역서와 지리교육 연구서의 효시로 평가받는 박노식의 저서이다. 지리교육에 대하여 충분한 기초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에 번역서와 저서가 출판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리교육을 위한 자료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다는 점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지리교육을 일관했던 국제이해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지리교육 실천에 대한 요구가 컸던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63년에는 제2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된다. 이 교육과정기에 지리교육의 연구는 양적인 성장과 연구영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연구논문의 수가 연간 5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후반에는 10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연구영역이 세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대학교수, 교육전문직에 의하여 주도되던 지리교육 연구에 현장교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에 개정, 공포되었다. 이는 교과의 배경학문에 내재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가 교과교육의 내용으로 선정, 조직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리학의 기본개념들을 추출하여 이를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가르쳐내는가에 초점을 두고 지리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지리적 지식의 지리교육 내용화, 지리교육 내용영역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리교육의 성격,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연구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에 출판된 미국의 HSGP를 근간으로 하는 번역서(이찬 외, 1972)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3차 교육과정하에서의 지리교육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 하나의 저서(이찬 외, 1975)는 당시 교과교육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판되었으며, 교과교육 논리에 의한 체계적인 지리

표 1. 지리교육 연구업적(1955-1990년)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I					2														2	
II						1		1			1	1			1	3			3	2
III																			2	
a																2	1			
IV										1	1			1	1		1	2	3	
b																				
c								1						2	1	1				
V	1							1			1			3	1		2	7	2	1
a															1		2	1	3	1
b									1		1					1		1	2	
VII								1												
VIII																				
a																	1	2		1
IX									1						1	3				
b																				
c												1	1		1					
X																			1	
계	1				2	1		4	2	1	4	2	5	5	10	10	16	13	7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계
I		1									1		1				1	7
II	2	3	1	2	1	1	2		1	2	3	1	2	4	2		2	42
III																1		3
a	1		2			1	2				1	1	4	3			3	21
IV		4	3	4	4	2	4	5	3	1	2		4	3	4	5	16	74
b																		
c	2	1	1			1		2		1			1	1				15
V		3	2	2	2	2	4	1		1	2	2	1	1	2	1		45
a				3	1	1	1	1				1	2		1	3		22
b		1			2				1	1		1		2		1	1	15
VII	2	1						1										6
VIII					1					1				3	3			8
a	1		1	2	2	2			1	1			1	1	4	2	4	26
IX	1		1									1	3	1	4	2		18
b																		
c			1			5			1	1		2		1	3	2	1	20
X							1	2			2	1		1		2	1	11
계	9	14	12	13	13	15	14	12	6	9	11	10	19	21	23	20	29	333

교육 개론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1980년대에는 1981년(제4차)과 1987년(제5차) 등 2번의 교육과정어 제정, 공포된다. 이 시기에는 제4차 교육과정 제정을 앞두고 지리교육 내용선정 및 조직의 원리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물들과 당시 우리 나라의 교과교육에 일대 변화

를 일으킨 탐구수업 이론에 따라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탐구수업에 관련된 연구논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번역서(이희연, 1984)가 출판되었다. 이 번역서는 지리교육 연구의 일가를 이룬 영국의 N.J. Graves의 저서를 번역한

표 2. 지리교육 연구업적(1991-1995년)

	91	92	93	94	95	계
I	1		1	3	1	6
II	7	1			1	9
III			1			1
a			3	2		5
IV	7	1	10	8	5	31
b				1		1
c						
V		1	5	4		10
a		1	2			3
b	1					1
VII			1		1	2
VIII	1		1		1	2
a		4	1		1	6
IX	1	2	4	2		9
b						
c						
X	1	1		2		4
계	19	11	29	22	9	90

것으로서 학교 및 교사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을 가진 영국의 지리교육을 소개함으로써 지리교육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임덕순(1986)에 의하여 체계를 갖춘 지리교육 개론서, 사회과교육의 틀에서 지리교육을 고찰한 김연옥(1990)의 저서, 류재명(1991)의 지리교육 수상집도 출판된다. 1980년대의 후반부터 외국의 지리교육을 소개하는 연구물들이 크게 증가한다.

1992년에는 제6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는데,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한국지리」가 「공통사회」에 통합됨으로써 지리교육에 일대 위기가 초래된다. 이러한 점때문에 이 교육과정의 시안작성 전후에 지리교육의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물들이 다량으로 산출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연간 지리교육 연구물의 수가 30편 정도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선 지리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1992년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지리교육 논문이 산출되고,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가 창립(1993.1.) 된 점이 기여하였다고 본다.

이 시기에 임덕순(1993)은 1986년판을 증보한 저서를, 이경한은 N.J. Graves의 편저를 「지리교육학강의」(1995)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출판된 「교실밖 지리여행」(노동희 박병석, 1994), 「교과서에서 배워지 못한 세계지리」(이희재, 1994),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임덕순, 1994) 등은 지리적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교육적 저서 및 번역서로서 최근 지리학 및 지리교육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영역별

다음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연구업적 검토를 위한 연구영역별로 연구의 경향 및 특징,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미래의 지리교육 연구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1) 영역 I (단행본)

지난 50년 동안 우리 나라 지리교육계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4종의 번역서와 8종의 저서 등 모두 12종의 단행본이 출판되었는데, 이 단행본들은 지리교육 연구자들과 일선 지리교육자들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우리 나라 지리교육계에 훌륭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리교육계의 역량을 감안한다면 12종의 단행본은 미흡한 느낌이 든다. 다른 교과목의 경우에 비하여 단행본의 수가 적으며, 심화된 각론 수준의 연구가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영역 차원에서는 IV(내용), V(교수학습 방법), VI(교재), VII(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II(목적·목표), VIII(심리), X(교사교육, 현장연구)의 측면은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있다.

또한 본 발표에서 검토준거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리교육의 목표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내용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사회과교육 및 지리교육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정의적 내용영역과 기능적 내용영역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학교급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 초등학교 지리교육의 비중이 매우 낮게 다루어지고 있다.

2) 영역 II (지리교육의 성격, 문제점 및 개선책)

이 영역의 연구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일찍부

터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을 전후하여 많이 산출되었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였던 제3차 교육과정 개정, 공포를 전후하여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관계를 다룬 연구업적들이 많이 산출되었으며, 이후 두번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1980년대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비추어 본 지리교육의 성격, 지리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태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5차 및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1987년과 1991년(2회)에 개최되었던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영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물과 활동은 지리교육의 위상이 약화되거나 지리교과목의 성격이 변화될 때 지리학과 지리교육계의 힘을 결집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지리교육 연구경향에서 아쉬운 점은 교육학의 교과이론에 비추어 본 지리교과의 가치, 성격, 의의 등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가 태무하다는 점이다. 교과목의 존립방식 및 위상, 사회과교육계의 3분법 논쟁, 통합-분과의 문제에 대하여 지리학과 지리교육계의 논리를 갖추어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학 일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영역 III(목적·목표)

지리교육 연구영역 중 이 영역에 관련된 연구물의 수는 매우 적다. 타 교과들의 경우 이 영역의 연구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논의도 활발함에 비하여 지리교육계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교과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교과의 교육과정 개발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지리교과목의 성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 개발에 선행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과교육의 논리에 따라 본다면 목적·목표는 곧 평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영역 IV(지리교육의 내용)

지리교육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물이 산출된

이 분야의 연구는 다시 ① 내용선정과 조직의 원리에 대한 연구, ② 내용영역별 연구, 그리고 ③ 지리학적 지식과 지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내용선정과 조직의 원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의 주요개념의 선정과 지역화 방안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지역화의 원리는 우리 나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과정 내용조직의 원리로서 타 교과들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리교육계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교육계 내부에는 물론 여타 교과들에도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영역별 연구는 다시, 지역 지지 향토교육, 지도교육, 인구·환경교육, 사고력교육, 국제이해 교육, 가치교육 등으로 구분되는데, 어느 영역보다도 이 영역의 연구물들은 지리교육계 외부의 교육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60년대에 향토교육, '70년대에 인구교육과 국제이해 교육,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환경교육,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지역·지리교육에 대한 연구물이 집중되어 있는 점이다.

지리학적 지식과 지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연구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주로 지리학자들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중등학교 교육내용의 적합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리학과 지리교육계의 밀접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념하여야 할 영역이다.

5) 영역 V(지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이 영역의 연구는 내용영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지리교육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영역의 연구경향을 보면 지리교육계가 교육학의 사조에 시의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탐구수업 모형의 적용에 관련된 연구물들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물들이 대체로 연구방법으로서 실험수업, 조사보다는 문헌연구의 경향을 띠고 있는 점, 그리고 미시적 실천수준에 치우쳐 있는 점 등은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그 결과의 수용에 한계를 내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지리교육 언어의 정립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이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에서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운 방법과 함께 내용특수적인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영역 Ⅶ(지리교육 교재)

이 영역의 연구는 ① 지리교재(교과서 중심) 내용의 분석, ② 교육자료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지리교육 교재내용의 분석 영역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그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 적용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연구물들이 산출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과거와의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연구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지리교재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물들은 대체로 교재의 내용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기술적, 소극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리교재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교재에 대한 비판적, 처방적 연구여야 한다.

국가·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필요를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성격을 지니는 지리교재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의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재의 내용의 교육적 적합성과 타당성, 학문적 정확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넓은 범위의 교육적 경험과 광범위한 학문 스펙트럼에 걸친 내용영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리교육에서는 다양한 자료가 이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지리교육 연구에서는 시청각 자료, 정기간행물, 사진, 모형, 시설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태만한 점이 아쉽다. 특히 교재로서의 지역(향토)의 설정, 답사모형에 적합한 코스 개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의 목록화 등이다.

7) 영역 Ⅷ(지리교육 평가)

이 영역의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지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총괄평가 위주라는 점이다. 지리교육은 사회과교육 내에서 내용의 위계성이 가장 강하여 일단 오개념이 형성되면 바로

잡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진단평가 및 형성평기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리교육의 특성상 기능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의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8) 영역 Ⅷ(지리교육 심리)

이 영역의 연구는 지리교육 연구의 기초분야로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이 영역의 연구 결과는 지리교육 내용에 대한 개인적 적합성 분석의 준거, 그리고 국가·사회적 요구라는 외재적 정당화뿐만 아니라 지리교육의 내재적 정당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영역의 연구물은 그 수가 적고, 대부분이 지도와 관련된 개념형성 단계에 대한 연구, mental map 연구 등에 치우쳐 있다. 그러므로 이외에도 지리교육과 관련된 아동 및 학생의 발달, 흥미, 관심분야에 대한 종단적 연구결과들이 필요하다.

9) 영역 Ⅸ(지리교육사 및 동향)

이 영역의 연구는 ① 지리교육사, ② 외국의 지리교육 동향, 그리고 ③ 교육과정 해설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지리교육사 영역의 연구물은 특정한 과거의 지리교육에 대한 단면적 연구, 과거부터 당시까지의 지리교육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지리교육 연구의 역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교육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고, 선구적인 실천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온 일본의 지리교육 동향을 소개한 연구물,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맞춘 교육과정의 해설(비교 소개) 연구물은 우리 나라 지리교육 방향의 설정과 실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그러나, 지리교육사의 경우 대부분은 그 시각이 내향적이어서 '왜'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미흡하였다. 지리교육계 내부에 한정하여 문제를 설정하고 바라다보는 내향적 시각은 지리교육의 변천에 대한 관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책과의 관계에서 본 지리교육사 및 동향에 대한 연구가 아쉽다.

10) 영역 X(교사교육과 현장연구 방법)

이 영역에서는 대체로 지리교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교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 현장 지리교육 실천의 개선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들이 산출되었다. 특히,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의 지리교사 교육에 대한 연구물들은 그동안 답습되어 오던 지리교사 교육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 및 현직교사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사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중점의 설정이 필요하며, 현장 교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현장 연구의 방법과 실재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연구물들이 미흡한 편이다.

III. 제 언

해방이후 5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 연구는 양과 질의 양 측면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여섯 번의 교육과정이 새롭게 제정,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리교과의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리고 현장의 지리교육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리교육 연구들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이 보다 발전되고 안정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평소에 지리교육 연구물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산출됨으로써 축적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물들 특히 지리교육의 성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영역에 관한 연구물들은 교육과정 개정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도 가능한 한 시기적으로 앞당겨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교육계 내외의 변화를 뒤따라 가면서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연구보다는 교육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영역 전반에 걸쳐 세분화되고 전문성있는 연구물들이 산출되어야 한다. 여타 교과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리교육 목적·목표, 지리교육 심리 영역에 대한 연구물들이 집중적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의적 영역, 기능적 영역에 관한 지리교육 연구물들이 산출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지리교육의 인지적 영역에 치우쳐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최근 학문탐구 기능과, 시민기능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는 중등학교 사회과교육의 추세를 감안하여 지리교육의 기능 영역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리교육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지리교육을 별개의 것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인간발달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초등 지리교육 연구자들은 중등으로의 발전과정을 전제하고, 중등 지리교육 연구자들은 초등에서의 지리교육을 감안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리교육 연구에 있어서 현행보다 증진된 지리학과 지리교육간의 협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지리학의 연구와 관련하여 지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개념, 일반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리교육의 독특한 언어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여섯째, 지리교육 내용의 적합성(개인적, 학문적, 사회적)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합성의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삼분법적 주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대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교과교육으로서의 지리교육의 가치를 정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지리교육계 외부에 지리교육 연구물들이 발표되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리교육 연구결과는 지리교육계 내부와 함께 외부와도 공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註

- 1)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정장호, 1976, "지리교육", 지리학, 13, 대한지리학회, 41-49; 강환국·정환영, 1983, "한국 사회와 교육학의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적 고찰(1): 지리교육 분야", 교육개발연구논총, 4,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교육개발연구소, 91-102; 이종우, 1987, "지리교육의 연구", 경북대학교학원논문집, 19,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33-155; 유흥식, 1988, "한국 지리교육 연구의

- 발달: 분야별 연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론집, 1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12-123 등이 있다. 이외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동 학회에서 발행하는 「사회과교육」에 게재된 지리교육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한 조광준, 1992, “지리교육연구사”, 사회과교육, 25, 한국사회과교육 연구회, 150-157이 있다.
- 2) 이기석·윤정숙, 1982, 한국지리논문목록, 보진재; 이기석·한주연, 한국지리논문목록, 1988, 보진재; 이기석·김영현, 1993, 한국지리논문목록, 백산출판사 등 일련의 목록집을 참조하였다. 이 목록집에 수록된 한국지리 논문목록이 고갈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본 논문에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익한 시사를 얻었다.
- ### 文 獻
- 강환국·정환영, 1983, “한국 사회과 교육학의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적 고찰(Ⅰ): 지리교육 분야”, 교육개발연구논총, 4,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 교육개발연구소, 91-102.
- 권순덕, 1993, “교수적 수준의 지리 교육과정 단위 계획과 교수의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혁재, 1991, “국토지리: 왜 배워야 하나?”, 지리학, 26(3), 253-258.
- 김경성 역, 1959, 신지리교육의 지침, 동국문화사.
- 김만곤, 1987, “Mental Map을 통한 아동의 공간의식 경향 분석: 대구지역 국민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지리학연구, 12, 한국지리교육학회, 17-33.
- 김연옥, 1955, “Pilot Course의 실제”, 교육, 3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회.
- 김연옥, 1990, 사회과 지리교육연구, 교육과학사.
- 김용숙, 1986,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교육학의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집, 19, 서울교육대학, 615-638.
- 김일기, 1976, “HSGP와 우리 고교지리의 비교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지리학연구실, 1-28.
- 김희목, 1994, “한국 초·중등학교 지리 교육과정 구성요소의 체계에 관한 기초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상준, 1992, “한국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상준, 1994, “국제화시대의 사회과 환경교육”, 사회과교육, 27, 82-95.
- 노웅희·박병석, 1994, 교실밖 지리여행, 세계절.
- 류유익, 1991, “국토지리: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지리학, 26(3), 259-264.
- 류재명, 1991,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도서출판 한울.
- 류재명, 1992, “지리 수업활동 조직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노식, 1959, 신지리학 교수론, 정음사.
- 서찬기, 1991, “현행 중등 지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리학, 26(3), 222-232.
- 서태열, 1993, “지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태열, 1994, “지리교육 연구의 영역설정을 위한 탐색”, 지리·환경교육, 2(1), 47-60.
- 예경희, 1973, “미군정기의 중등학교 지리교육”, 셋별, 21, 대구대륜고등학교학생회, 30-37.
- 유홍식, 1988, “한국 지리교육연구의 발달”, 지리교육론집, 1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12-123.
- 유홍식, 1995, “지리과의 환경교육 목표와 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한 역, 1995, 지리교육학강의, 명보문화사.
- 이기석, 199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의 문제점과 지리교과의 방향”, 지리학, 26(3), 242-252.
- 이돈희, 1987, “교과교육학의 성격과 과제”, 사대논총, 3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7.
- 이양우, 1984, “지리교육과정 내용선정 기준과 그 전개안”, 지리학연구, 9, 한국지리교육학회, 725-756.
- 이중우, 1987, “지리교육의 연구동향”, 경북대

- 교육대학원 논문집, 19,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33-155.
- 이찬, 1968, "HSGP를 통해 본 미국의 지리교육 개혁", 지리학, 3, 대한지리학회, 45-51.
- 이찬·김연옥·권혁재 공역, 1972, 지리교육의 원리와 사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이찬·임덕순, 1980, "초·중·고교 지리교육 과정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 한국교육개발원, 177-236.
- 이찬 외 5인, 1975, 지리과교육, 능력개발사.
- 이희연 역, 1984, 지리교육학개론, 교학연구사.
- 이희재 역, 1994,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세계 지리, 고려원미디어.
- 임덕순, 1986, 지리교육론, 보진재.
- 임덕순, 1993, 지리교육원리: 이론과 적용, 법문사.
- 임덕순, 1994,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 집문당.
- 장보웅, 1970, "개화기의 지리교육", 지리학, 5, 대한지리학회, 41-58.
- 정세구, 1988, "한국 사회과교육학 정립의 방향", 사대논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28.
- 정장호·신동승, 1995, "국민학교 교과서의 지명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25, 1-22.
- 조광준, 1986, "일본의 사회과 지리적 분야의 최근 동향 파악", 논문집, 19, 서울교육대학, 99-144.
- 조광준, 1992, "지리교육연구사", 사회과교육, 25,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150-157.
- 조창연, 1981, "Romey의 방법에 따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 논문집, 19(사회과학편), 공주사범대학, 225-237.
- 최남수, 1983, "국민학교 아동의 공간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축척과 지도화를 중심으로", 지리학과 지리교육, 1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98-113.
- 최원희, 1994, "지리과 사고수업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윤희, 1991, "인지론적 접근에 의한 지리교육용 코스웨어의 개발과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론집, 25, 1-23.
- 최진식, 1988, "일본 지리교육연구의 동향: 1945-1981", 지리교육론집, 1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24-135.
- 한균형, 1993, "지리부도 분석을 통한 중 고등학교 지리학습 향상 방안", 지리학연구, 21, 63-80.
- 황재기, 1991, "21세기를 준비하는 지리교육의 방향", 지리학, 26(3), 216-221.
- John Walforth, 1980,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Canadian Geographical Education*, University of Ottawa Press, 165-178.
- John Fien, 1982, What Kind of Research for What Kind of Teaching? Towards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as a Critical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Geographic Education*, University of Colorado, 265-276.

Review of the Trend of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in Korea (1945-1995)

Sang-Joon Nam*

Summ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trend of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since the launching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in 1945 and to suggest the areas and directions for future-oriented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422 articles (including 12 books) were reviewed and analyzed for this paper.

The outputs of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contributed in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geographical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geography. But to achieve stable and desirable status as a subject in the school curriculum,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has to be changed in its target areas and methods.

The results and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in diverse areas, especially in the areas of significance, aims and objectives, and psychology of geographical education should be preceded the revision of the school curriculum so that the results could be used as the basis information and evidences in decision making about the curriculum.

Second,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for affective domain and skill

development should be implemented more actively in accordance to the trend of integration centering around the discipline-inquiry skill and citizenship skill. Mor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circles of geographical education and geography would be one of the ways to satisfy the social needs.

Third, the linkage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geography is crucial to the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Considering the sequence in human development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for two levels of school should be conducted in more wide school-year span.

Fourth, critical and prescriptive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focusing on the individual, disciplinary, and social relevancy of the content of geographical education may be recommended.

Finally, the outputs of the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should be publicized more widely so that the rationale for justification of subject geography and geographical education may be shared with among the researchers, educational administrators, and practioners.

Key Words: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research areas in geographical education, status of subject geography, language of geographical education

*Full-time Lecturer, Ch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태열(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토론자: 서태열) 발표자께서는 지난 50년간의 지리교육을 두가지 형태로 즉 시기별로 그리고 연구의 영역별로 연구업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시기별 분석에서는 주로 지리교육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경향을 정리하셨고, 연구의 영역별 분석에서는 10개의 연구영역별로 개별연구자와 연구논저를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의 내용 및 주제, 연구의 방법에서 발견되는 연구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10개 연구영역의 구분이 갖는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기존의 나열식 연구업적의 정리와 비교할 때 장단점도 있지만, 이러한 틀은 지리교육 50년의 연구방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데는 비교적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발표자께서 연구동향을 정리한 내용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제언에 대해 4가지 정도만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번째의 제언에서 타 교과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리교육의 목적·목표에 대한 연구물이 집중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타 교과의 이 영역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셨지만, 이 영역의 연구가 부족한 것은 그동안 지리교과에서 교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리 교과가 애국심, 애郷심을 기르는데 공헌한다는 전통적인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관점에서 그 다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리 교육의 도구적인 그리고 외재적인 제2목적이 지리교과의 사회적 유용성을 보장해주리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과 내적으로 전체 교육과정상에서의 존재 논리를 개발하는데 너무 등한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리교육은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에서의 교육과정 및 교수법의 개발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 지리교육이 주로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볼 때, 초·중등학교에서

한 교과의 교육과정에서의 생존은 교과의 본질적 교육적 가치의 측면에서의 정당화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과의 내적 논리의 개발을 통한 교과간의 경쟁에 달려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리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나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리가 공헌할 수 있는 내적 정신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철학적 내지 인식론적인 탐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대적인 교육목적의 논리를 대변하는 애국심, 애郷심이라는 국지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목적이나 너무 광범위하여 일반교육의 목적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개인의 인격도야는 복잡해지고 조직화된 현대교육에서 교과의 존재방식을 더 이상 옹호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리교육이 무엇을 통해 교육에 공헌하는지 즉 교과의 어떠한 내적 논리를 통해 외적으로는 일반교육의 목적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헌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를 통해 지리교육의 내용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선정되고 조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런 교과 혹은 교과내의 과목간의 경쟁없이 지리학의 모든 내용을 학교지리에서 다 가르칠 수 있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는 지리를 학교에서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지리 교육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지식, 이해, 안목을 길러주려고 하는 지에 대해,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본질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지리교육이 가지는 외재적 목표를 정련화하고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본질적 목표를 밝히려는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둘째, 지리교육 심리 영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동의합니다. 최근 교육학적 연구의 편협성과 비현실성을 극복하기위해 대두된 교과교육학에서도 중심적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교과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심리적 연구입니다. 학교 교육현장과 교육이론간의 괴리가 교과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육은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처방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교과의 교육

이 학교교육의 중심을 이루어왔으면서도 교과 내용의 전달과 그 효율성의 제고, 총론적인 문제점의 지적에 급급해왔다면, 보다 차원을 높혀 교육이 전문적이 되기 위해서는 각 교과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환경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리 수업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개념들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교수, 학습방법을 이론적으로 처방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교육학의 핵심은 교과의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이고 이는 심리적 연구가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돈희 선생님의 개념을 빌리자면, 교과교육학이 기존의 교과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였던 '교육방법중심적 교과교육학'에서 더 나아가, 지리교육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의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교육내용중심적 교과교육학'이나 교과의 교육적 상황을 이론적으로 상정하고 실제상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적 탐색을 통한 '교육이론중심적 교과교육학'으로의 발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셋째로 지적하신 지리교육의 기능영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리교육에서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은 학습결과와 결과적 지식입니다. 즉 지나치게 결과적 지식과 이러한 지식의 전달이 지리수업의 주류를 이루어왔다는 것이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한편으로 상당한 정도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해왔다는 사실때문에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식 덩어리 그 자체보다 그와 같은 지식에 어떻게 도달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강조할 때 우리는 과정적 지식 즉 기능(skills)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지식 및 정보의 폭발시대에 지식과 정보를 새로운 문제상황에 직면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지리수업을 통하여 어떠한 지적 경험을 갖느냐 하는 것

이고, 과정이 생략된 지식은 결국 암기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지리보다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유독 암기과목으로 인식되어지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 그 자체보다 지적기능(intellectual skills)에 대한 관심은 새삼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탐구에서 탐구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탐구기능에서 더 나아가 가치 및 태도의 탐구를 결합함으로써 창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와 같은 사고력을 기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종래의 지식중심 지리교육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리교육계 외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확대하고 내부와도 공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좋은 지적입니다. 이는 지리교육과 관련되는 연구보다도 정책이나 학회의 운영,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최근 미국의 지리교육부흥운동을 보면 이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큽니다. 일단 외적인 것은 연구수준이 올라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내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회의 분과활동이나 교과연구회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자기개발과 실천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지리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교사들의 경험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리교육의 이론적 연구와 접목할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장교사의 지리교육이 활발해지고 이론적 연구자나 교육행정가와와의 일정한 연대를 만드는 것은 성공적인 지리교육부흥운동의 출발점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지리교육은 지리학이라는 학문과 학교교육의 연결통로이고, 이의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교사의 수준이 바로 학교지리교육의 수준이므로 이러한 연결고리와 그 연결방식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